

# 1960년대 주부 ‘생활수기’ 붐의 여성문학사적 의의

한경희

한국학중앙연구원

목차

- 1 서론
- 2 ‘서민’으로 확대되는 여성문학 독자층
- 3 감상성에서 생활력으로 변화되는 여성성
- 4 가난에 대한 동정적 유대감을 통한 대중성의 확보
- 5 결론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B5A17051435).

1960년대는 여성 일반을 위한 대중 공론장이 마련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그리 넉넉지 않은 서민 여성들이 ‘주부’라는 이름의 문학 행위자로 편입될 수 있었던 시기였다. 당대 가난 극복 수기의 한 종류인 ‘생활수기’라는 새로운 여성문학 장르가 그 소산이라 할 수 있다.

1930년대 이래 여성문학이란 연애와 결혼과 관련된 자신의 개인사를 두고 생겨나는 ‘비에’와 ‘변민’을 지극히 과잉된 감상성으로 묘사하는 문학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그러나 ‘생활수기’의 주된 행위자층인 서민 여성들은 그간 문학적 제재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간주되어왔던 세속적인 일상생활을 사실적으로 재현했으며, 고된 생활고 속에서도 억척스러운 생활의 의지와 현실 세태에 대한 강한 비판을 보인다는 특징이 있었다. 아울러, ‘생활수기’에서 여성의 무력함과 취약함은 남성과 종속적인 성적 관계를 맺어야만 하는 당위적 전제로서 인식되기보다, 다른 여성과 연결되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생활수기’의 성격은 특히 가난의 고통을 그 제재로 다룰 때 전국민적인 감동을 자아냈다.

이처럼 ‘생활수기’는 서민 여성들로 인해 기존의 여성문학과 변별되는 새로운 내용과 형식을 보이는 여성문학이 출현할 수 있었음을 징후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근대화와 경제개발이 1970년대를 전후한 여성문학의 변화를 이끈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추측해볼 수 있게 해준다.

국문핵심어: 주부, 가난, 서민, 근대화, 민중수기, 생활수기, 여성문학, 독자 대중

## 1 서론

여성문학의 역사를 연구하는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은, 여성 작가들이 ‘문단’이라 불리는 남성중심적으로 구성된 전문 예술인의 세계에 입장하는 데 있어 이러한 제한이 있어 왔다는 점에 주목하여, ‘문단’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창작되었던 여성들의 문학작품에도 큰 관심을 기울여왔다. 여성문학 연구에 있어 대중문학 연구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 작

가에 의해 쓰인 대중문학을 연구하는 과정은 문학의 창작에 있어 그 중심 주체를 비단 작가 개인만으로 한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독자 집단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인지하게 되는 것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문학에 대한 기존 정의에 한계가 있음에 주의하게 되기도 하는데, 문학이란 미적으로든 윤리적으로든 탁월한 작가 ‘개인’이 자신의 독창적인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문학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만으로는, 여성들에 의해 대중문학이 창작되고 향유되는 ‘집단적’ 현상의 의의를 구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여성문학의 역사란 이런저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문단’에서 작가라는 사회적 공인을 얻을 수 있었던 몇몇 예외적인 여성들의 문학적 성취라기보다, ‘여성’이라는 공통된 정체성을 지니고서 문학 행위를 하는 복수 주체들의 역사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대두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여성문학의 역사를 기술하는 작업은 말 그대로 ‘총체적인’ 작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테리 이글턴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문학은 영화, 드라마, 미술, 음악과 같은 여타 예술과 달리 비교적 적은 사회적 자원—리터러시, 시간, 종이, 펜—만 갖추어도 쉽게 수행 가능한 것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 행위를 위해서는 육체적·정신적 안녕과 여가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모든 계층이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sup>1</sup> 따라서 ‘여성’이라는 공통된 정체성을 지니고 문학 행위를 하는 복수 주체들의 역사로서 여성문학의 역사를 기술한다고 한다면, 그 여성들이 어떠한 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여성들이었는지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문학의 역사를 기술하는 데 있어 ‘여성’이라는 정체성의 성격을 결코 단일하게 상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또한 레이먼드 윌리엄스에 따르면 문학 행위자의 출신 계층은 문학이라는 제도와 형식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sup>2</sup> 여성문학 행위자 층의 변화 역시 어떠한 소재와 형식을 통해 자신들의 문학 행위를 ‘여성문학’이라는 범주 하에서 행할지 그 범위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특정 집단 안에서 ‘여성’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역할이 달라지고, 또 이에

1 테리 이글턴, 윤희기 역, 『비평과 이데올로기』, 인간사랑, 2012, 93쪽.

2 레이먼드 윌리엄스, 성은애 역, 『기나긴 혁명』, 문학동네, 2005, 364쪽.

따라 삶의 경험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성문학의 주 행위자 층이 어떤 집단인가에 따라 여성문학의 소재와 형식 등등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에 새로운 여성문학 계층의 부상을 중점에 두고 여성문학의 역사를 기술한다고 한다면, 그 작업은 사회적·정치적·경제적·문화적 맥락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총체적일 수밖에 없다.

본고는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며 1970년을 전후한 여성문학의 역사적 변화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여성문학의 역사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1970년대 이후 여성문학이 그 이전 시대의 여성문학과 근본적으로 변별된다고 꾸준히 지적해왔다. 박정애는 1950-60년대 여성문학이 가부장제적, 반공주의적, 국가주의적 요구에 순응하고 ‘여류’라는 이름의 아비투스<sup>3</sup>를 공유하면서 그들 나름의 기득권을 구축해나갔다면, 1970년대 여성문학은 자신이 속한 계급이나 ‘여류’의 아비투스<sup>4</sup>에 대한 냉정한 성찰을 통해 페미니즘 문학이 꽃 피울 수 있는 지지대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sup>5</sup> 또한 김양선은 1970년대 여성문학은 1950-60년대 여성문학과 달리 여성 작가의 희귀성 때문이 아니라 작품성 그 자체만으로 남성중심적 문학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sup>6</sup> 아울러 김은석은 1960-70년대 발간된 ‘여류문학전집’ 분석을 통해 1970년대를 전후하여 여성문학의 주체가 ‘여류’에서 ‘주부’로 변화했음을 지적한 바 있다.<sup>7</sup> 한편 한경희는 대중매체의 확산과 함께 문학장의 폭이 넓어지면서 1970년대 여성문학이 그 이전 시대 여성문학의 영향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다고 얘기했으며,<sup>8</sup> 이선옥은 1970년대 여성문학이 중산층 여성 지식인들의 ‘문단’ 활동뿐만 아니라, 여성지와 같은 대중저널을 기반으로 한 상업문학가들의 창작 활동, 여공들의 수기 쓰기 등 다양한 주체 위치에서 여성들이 생산해낸 문학 텍스트들을 아우르고

3 박정애, 『‘女流’의 기원과 정체성』, 한국학술정보, 2006, 15쪽, 205쪽.

4 김양선, 『한국 근·현대 여성문학 장의 형성: 문학제도와 양식』, 소명출판, 2012, 279쪽.

5 김은석, 「‘여류문학전집’(1967-1979)과 여성문학의 젠더 정치」,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82-92쪽.

6 한경희, 「1970년대 여성문학장의 형성과 ‘보통’ 여성의 작가적 시민권 주장-박완서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50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325-338쪽.

있는 것임을 논의한 바 있다.<sup>7</sup> 이처럼 1970년대가 여성문학사에 있어서 큰 결절점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여성문학 행위자 층의 변화를 통해 여성문학으로서 알맞은 소재나 형식이 변화하는 양상을 살펴보는 것으로써 이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해보고자 한다.

본고는 이를 1960년대 초반부터 유행하기 시작하여 1960년대 중후반 이후 여성문학의 한 장르로 자리매김되었던 ‘생활수기’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수기는 자신의 체험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문학 장르로서, 대체로 전문적인 문학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들에 의해 주로 향유되어왔던 문학이다.<sup>8</sup> 여성들에게 있어서도 수기는 자신들의 문학 행위를 펼치는 주요 장르로서 기능해왔다는 점에서, 아마추어들에 의해 창작되는 여성문학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왔다. 그런데 1960년대에 이르러 여성들이 쓰는 수기에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한다. 여성들은 가난, 혼례, 출산, 취업, 학업, 질병, 죽음 등 생계나 살림을 꾸려나가는 도중에 자신이 겪은 체험을 주요 소재 삼아, 이러한 이벤트들을 어떻게 잘 다스려 소중한 생을 계속해서 유지해나갔는지를 이야기했다. 이는 ‘생활수기’라고 불리면서 1960년대 중후반 이후 여성 특히 주부로서의 역할을 맡은 여성들이 쓰는 수기로서 장르화되었는데, 본고는 이와 같은 새로운 장르의 부상 과정이 1970년대 여성문학의 변화를 예비적이자 징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고 이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본고는 2장에서 여성문학의 새로운 행위자 층이 어떠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이로 인해 나타났던 여성적 글의 내용과 형식 상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생활수기’라는 장르가 여성 독자에게 가져다주었던 효용성이 무엇인지를 통해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는 네이버 라이브러리에서

---

7 이선옥, 「1970년대 여성문학-여성전업작가의 등장과 다양한 글쓰기 주체의 성장-」, 『개념과 소통』 제26호, 한림과학원, 2020, 77-109쪽.

8 특히 1960년대부터 1980년대에 수기는 교육받은 중산층 이상의 문화 제도인 ‘문학’에 입장할 수 없는 민중들에 의해 향유되었던 문학 양식이었다. 이 점에 의해 수기 연구는 ‘아래’로부터의 문학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산업화 시대 노동자들의 수기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천정환, 「서발틴은 쓸 수 있는가」, 『민족문학사연구』 제47호, 민족문학사연구소, 2011, 231-240쪽.

원문을 확인할 수 있는 일간지인 『동아일보』, 『경향신문』, 『조선일보』 등에서 분석 대상을 선별하였다.

## 2 ‘서민’으로 확대되는 여성문학 독자층

1960년대 근대화와 경제개발은 한국 여성들에게 있어 가히 ‘문화 혁명’에 상응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었다. 1960년대 근대화와 경제개발은 여성들이 근대 교육을 받기 시작한 이래 1950년대에 이르기까지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았던 한국 여성들의 문학 행위성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1960년대 이전 한국 여성들의 생활은, 그 여성이 아무리 가사와 육아에만 전념해도 되는 안정된 중산층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녹록지 않았다. 냉장고와 세탁기와 같은 가전제품이 없고, 냉난방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는 재래식 한옥에 살고 있으며, 평균 5명의 자녀를 비롯해 노부모까지 부양해야 하는 ‘전근대적’ 생활 환경은 한국 여성들에게 온종일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sup>9</sup> 이에 일반적인 한국 여성들은 글을 쓰는 것은 물론이고 글을 읽는 것에도 많은 제약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다음의 1960년대 초 신문 기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 여성들의 이와 같은 상황은 곧 한국 사회의 후진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져 지식인들에 의해 질타되곤 했다.

복잡하고 쪼들리기만 하는 생활 속에 얽매어있는 일반 가정여성들의 讀書란 讀書週間이 무색할만큼 책을 읽지 않고 있는 것이 그 實情이다. 理由는 한결같이 가난과 複雜多難한 「살림」때문이라고들 하는데 정말 한심할 정도로 책을 멀리하고 있었다. 간혹 읽는다 치더라도 女性들 스스로가 「읽고싶다」든가 「알고싶다」는 의욕으로 책을 들지 않고 주위에 굴러다니는 값싼 大衆娛樂誌 정도 순전한 「재미」에 끌려 심심풀이로 읽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자극적인 저속한 小說을 주로 읽으며 三流俳優들의

9 「어머니는 고달프다」, 『경향신문』, 1967.5.8; 「서울의 주부생활」, 『경향신문』, 1968.6.24 참조.

「스칸달」에까지 풍부한 지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기자가 대상으로 한 가정주부 二百三十名 가운데 七十%가 책을 전연 읽지 않는다는 대답이었고 二十%가 誤落 興味 본위의 대중잡지 나머지 十%가 女性教養書籍 外 제법 건전한 문예서적을 읽고 있었다.<sup>10</sup>

지난 九월十日 동아일보지상에 「외국여성이 본 한국여성」이란 제목 아래 서울주재 영국대사부인 에반스 여사와의 회견기가 실렸었다. 에반스 여사가 접촉한 한국 여성은 대략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이라는 전제 하에 여사는 한국 여성은 사회와 정치에 무관심하고 무식하다고 했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교육을 받은 여성이 남을 도우려고도 계몽하려고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여사는 그 이유를 한국 여성들이 모든 힘과 정열과 시간을 가정 안에서 소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나는 그 이유를 한국 여성이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sup>11</sup>

위의 신문기사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 여성들의 독서량 부족은 여성들이 가정생활에만 신경 쓸 뿐 지적 교양을 쌓으려는 노력에 게으르기 때문이라고 지적되었으며 이와 같은 한국 여성의 교양 없음은 곧 한국의 후진성을 나타내는 현상으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당시 한국 여성들은 지적 교양을 쌓는 일에 태만하기보다, 자신들을 둘러싼 생활 환경으로 말미암아 독서 활동을 비롯한 문학 행위 전반이 제약되어 있던 처지였다. 다음 사설은 1960년 6월 4일 『조선일보』의 여성 독자 투고로서, 자신들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여성들을 단지 계몽과 선도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지식인에 대한 불만을, 『여원』과 같이 여성 계몽과 교양 함양을 모토로 삼아 발간되었던 당시 여성지를 구체적 대상으로 삼아 토로하고 있다.

저는 집에서 아이들이나 키우고 살림을 돌보는 가정주부입니다. 배운

---

10 「일반여성. 살림에 억눌린채 「읽지않는다」가 대부분」, 『조선일보』, 1960.10.23.

11 「여성들은 반성하자 『영국여성이 본 한국여성』을 읽고」, 『동아일보』, 1960.10.5.

것도 별로 없고 글재주도 형편없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애아버지가 사다 주는 여성잡지를 읽고 느낀 점이 있어 신문사에 투고합니다. 대체로 우리나라 여성잡지는 읽을거리가 없다고 하면 틀린 말일까요. 세부적인 내용은 차차 지적하겠지만 우선 책 한 권에 사오백환을 주고사서 한 십분만 뒤적이다보면 금방 흥미가 없어지니까요. 책의 부피나 목차를 보면 그야말로 번드르하게 다채롭게 꾸미는 척하겠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모두가 수박 겉핥기 식이거든요. 목차를 따라서 몇 개 읽다가 화가 나서 다시는 책을 사지 않으리라고 다짐한 적도 한 두번이 아닙니다. 몹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여성잡지란 두말할 것도 없이 여성들이 보고 즐길 수 있어야 하는데 여성인 우리들이 탐탁히 생각 않는 여성잡지는 도무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성잡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개가 지나치게 계몽적이거나 혹은 지나치게 서구적인 선진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여성들 가운데는 못 배우고 우매한 여성들도 많을 것이며 반면에 외국유학이나 대학교육을 받은 지성인들도 많습니다. 때문에 잡지편집자들은 이 두 여성들의 관심을 모조리 끌게 하려는 한 시도로서 그런 짜여진 기사를 취급한 것 같은데 편집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여성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매하지도 않고 서구적인 생활개선이 되어있지도 않습니다. 만약 편집자가 현재 우리 주위에서 살펴볼 수 있는 여성들의 생활을 현상 그대로 바르게 받아들였다면 그런 현실과 동떨어진 편집구상은 하지 않았으리라 생각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잡지에서 우리의 경제사정으로 도저히 생각도 한수없는 주택설계라든가 요리에 있어서도 된장 두부찌개 김치밖에 모르는 우리들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호화한 재료법을 소개하고있습니다.<sup>12</sup>

이 글을 기고한 차석순은 자신이 아이를 키우고 살림을 돌보는 가정주부라고 서두에서 밝힌 후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글재주도 형편” 없는 자신이 신문사에 투고

---

12 車錫順, 「우리가 바라는 女性雜誌-生活과 동떨어진 構想은 「눈요기」뿐」, 『조선일보』, 1960.6.4.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차석순은 당대 여성지들이 “지나치게 계몽적이거나 혹은 지나치게 서구적인 선진”을 감행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정작 그 중간에 있는 자신들이 여성 관련 담론에서 소외되는 처지에 놓여있다고 얘기한다. 대다수의 여성들은 대학 교육과 같은 고등교육을 받은 엘리트 지성인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리 무지몽매한 이들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성지의 필진과 같은 지식인들은 이 두 극단에 있는 여성들만을 ‘한국 여성’으로 상정하여, 정작 자신과 같은 대다수의 평범한 여성들에게 필요한 기사를 신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차석순은 이러한 모순이 “우리 주위에서 살펴볼 수 있는 여성들의 생활을 현상 그대로” 바라보려 하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진 구상”을 하게 되는 것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한다.

한국 여성을 재현하는 담론의 이와 같은 모순은 여성들이 담론의 타자화된 대상이 되기만 할 뿐 담론의 주체가 되기는 어려운 상황에 의해 증폭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은 1960년대 근대화와 경제개발이 차츰 차츰 진행되기 시작함에 따라 변화가 오기 시작한다. 이 시기 자본주의적 산업화 과정에서 기업화되기 시작한 언론사들은 보다 폭넓은 독자층을 확보하기 위해 여성 일반을 상대로 하는 대중 공론장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그 시작을 알리는 것이 일간지의 가정면에 마련된 여성 독자 투고란으로, 『동아일보』에서 1961년 9월에 개설한 ‘여성살롱’, 뒤이어 『경향신문』에서 1962년 2월에 개설한 ‘女子의窓’, 『조선일보』에서 1963년 9월에 개설한 ‘여성사교실/레이디살롱’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공간을 통해 최소한 신문을 구독할 만한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있는 여성들은 직접 자기 자신의 삶을 담론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시작한다. 아래 인용은 각각 『동아일보』, 『경향신문』, 『조선일보』의 여성 독자 투고란 창설 당시 홍보문이다.

「여성살롱」欄을두었습니다. 愛讀者 여러분의 投稿를 환영하오니 다음 規定에 依해 本社文化部로 보내주십시오.

◇二〇〇字 사진住所와姓名職場을記入할 것.<sup>13</sup>

13 「가슴에棲息한 『흰불나방』」, 『동아일보』, 1961.9.8.

「女子의窓」에 여성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환영합니다(2백자원고지 4장이내) 게재분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보내드립니다.<sup>14</sup>

허욕에 찬 세상입니다. 답답한 살림이죠, 웅색한 부엌이구요. 그래도 여자의 마음만은 꽃 같아야겠어요. 이런 너절한 속에서나마, 아니 그러니까 좀더 고운 꿈을 꾸며 알뜰한 살림을 해야겠구요.

이러한 부드러운 마음을 서로 나누어 갖지 않으시겠어요? 내용은 무엇이든 좋습니다. 2백자원고지 삼매에 고운 마음을 담아 「포스트」에 실려 보내는 것뿐이니까요.

(住所姓名年齡記入) 게재된 분에겐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sup>15</sup>

일간지의 여성 독자 투고란 개설 이전, 일반 여성들이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여성지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1960년대 초 『여원』의 가격이 300원으로, 당시 일간지 한 달 구독료가 80원이었다는 점과 비교해볼 때 상당히 고가였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성지는 경제적 여유가 없는 대다수 서민 여성들이 쉽게 구독할 수 있는 독서물이 아니었다. 이 점에서 일간지에 여성 독자 투고란이 개설되었다는 것은 이전에 비해 훨씬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담론 공간이 비로소 생겼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위의 각 일간지의 여성 독자 투고란의 첫 광고문구들은 여성들에게 문학 행위의 기회를 주려는 노력이 이들의 문학 행위를 제약하는 생활 환경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해준다. 일간지 여성 독자 투고란은 상설투고 형식으로 여성 신문 구독자들의 참여를 손쉽게 했다. 또한 자유주제 형식으로 200자 원고지 3-4매 정도의 짧은 글을 받았기 때문에 여성 독자들로 하여금 글을 쓰는 데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 않게 했다. 아울러 주제를 미리 정해놓지 않아 쓸거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함으로써 시간을 따로 내어 글을 쓰는 행위에 부담감을 덜 느끼도록 했다. 원하는 때에 원하는 주제로 짧

14 「좁은문 넓은문」, 『경향신문』, 1962.2.3.

15 「알리는 말씀」, 『조선일보』, 1963.9.14.

은 분량의 글을 써서 어느 때라도 투고할 수 있다는 조건은 뻑뻑한 살림을 꾸리며 가사 및 육아 등으로 문학 행위를 할 시간을 내기 어려웠던 일반 서민 여성들에게 펜을 들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었다. 이로써 일간지의 여성 독자 투고란은 기본적인 리터러시만 갖추고 있는 여성이라면 어떠한 계층에 있더라도 참여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전까지 중상류층 여성들로 한정되었던 문학 독자층의 폭을 서민 여성으로까지 넓혔다.

“여학교에 다닐때부터 책읽기와 글쓰기를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애들 기르느라 남편 병구완 하느라 떡장사 품팔이 등 안해본 일이 없이 고생을 했으면서도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은 아직 없어지질 않는군요”

1남 1녀를 기르고 지금은 조그만 전자오락실을 경영하고 있는 오여사의 문학에 대한 동경은 무척이나 수줍고 애뜻하다. “20여년전 여성을 위한 투고란으로는 처음으로 동아일보에 「여성살롱」이 생겼을 때 너무 기뻐서 시간만 나면 글을 써보냈어요. 똑같은 사람을 여러번 실어주지 않을까봐 「오희자」 「김경숙」 등 거짓 이름으로도 많이 보냈습니다.”

그 외에도 KBS MBC 등 라디오 방송의 주부 시간에도 부지런히 글을 써보냈다. 20여년 전 인가가 드문드문하던 천호동의 동네 사람들은 라디오에서 나오는 그의 이름을 듣고 농담 겸 소설가라고 불러주었다고 오여사는 부끄러운 미소를 짓는다.<sup>16</sup>

위의 신문기사 인터뷰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오여사라 불리는 이 여성은 『동아일보』의 ‘여성살롱’을 ‘여성’을 위해 처음 개설된 투고란으로 기억하고 있다. 자신과 같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서민 여성에게도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대중 공론장으로는 『동아일보』의 ‘여성살롱’이 거의 유일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오여사는 “여학교에 다닐 때부터 책읽기와 글쓰기를 무척이나 좋아”

16 「主婦백일장 特別賞 받은 吳姬淑 할머니」, 『동아일보』, 1981.6.15.

했지만, 어려운 살림 때문에 글을 읽고 쓰는 것에 대한 소망을 묻어볼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한다. 『동아일보』의 ‘여성살롱’은 그러한 상황 하에 있는 자신에게도 손쉽게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오여사가 “조그만 전자오락실”을 경영하고 있는 것처럼, 『동아일보』의 ‘여성살롱’과 같은 일간지 여성 독자 투고란의 필자 중에서는 가정 형편이 그리 넉넉지 않은 평범한 서민 여성을 흔히 찾아볼 수 있었다. 일간지의 여성 독자 투고란 필자들은 서울의 중산층 가정주부에서부터 20대의 다방 레지와 버스 차장, 50대 여공, 버스 운전자 가족의 75세 할머니, 시골에서 농사 짓는 농부 등 서민 여성들에게 걸쳐 있었다.

1960년대 초반 일간지의 여성 독자 투고란 개설로부터 시작된 여성 일반을 위한 대중 공론장은 1960년대 중후반 여성지 발간이 증대됨에 따라 더욱 확대되었다.<sup>17</sup> 1960년대에는 1950년대 유일한 여성지였던 『여원』에 더해, 1962년 『여상』, 1965년 『주부생활』, 1967년 『여성동아』가 창간되면서 여성지의 수가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 여성지의 발행 부수 역시 증가했다. 1960년대 초중반부터 『여원』과 『여상』의 발간부수가 꾸준히 늘기 시작해, 1965년 『주부생활』 및 1967년 『여성동아』 창간 이후 여성지 발간 부수는 더욱 급증했다.<sup>18</sup> 이와 같은 여성지들은 독자의 구독을 늘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독자수기공모를 받았다. 독자수기의 비중이 그리 크지 않았던 『여원』은 1962년 4월부터 매월 독자수기공모를 받기 시작했으며,<sup>19</sup> 1962년 11월에 창간된 『여상』 역시 독자수기공모를 받

17 1960년대는 ‘여성지의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여러 정기간행물 중에서도 여성지가 잡지출판장에서 최고의 위치를 점유했던 때였다. 김중희의 조사에 따르면 1960년대에는 14종의 여성지가 있었으며, 이 중 3종만이 1950년대에 창간되고 나머지 11종은 모두 1960년대에 새롭게 창간된 잡지였다고 한다. 이 잡지들 가운데 발행부수가 10만부 이상이었던 여성지는 『여원』, 『여상』, 『주부생활』, 『여성동아』 총 4종이었다. (김중희, 「1960년대 출판문화와 여성지 연구: 부르디외(Bourdieu)의 장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55쪽, 121쪽.)

18 『여원』은 1963년 말인 창간 7주년 무렵 6만 부를 기록하고, 1967년 중후반 무렵 10만부를 돌파했다. 『여상』은 창간 2년 여 만인 1964년에 발행 부수 5만을 돌파했으며, 『주부생활』은 1965년 창간 2주년 만인 1967년 발행부수 10만부라는 기록을 세웠다. 1967년에 창간된 『여성동아』는 1970년 4월 기준으로 9만 2천부를 발행했다. (위의 글, 107쪽.)

19 1950년대까지 거의 유일한 여성지였던 『여원』에서 ‘여원살롱’을 마련하여 독자투고를 받아오기는 했으나, 300페이지 분량 월간지의 1페이지에 불과하였기에 여성 독자들이 참여

았다. 또한 1965년에 창간된 『주부생활』과 1967년 『여성동아』는 독자가 곧 필진이라고 얘기하면서, 독자들의 투고를 적극 권장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여성 일반을 위한 대중 공론장의 확대 과정을 통해 문학 행위의 기회를 가장 많이 누릴 수 있었던 서민 여성들은 아무래도 대도시 중산층 여성들이었다. 1960년대 대도시 중산층 가정의 20-30대 여성들은 1930-40년대에 출생하여 해방 이후 의무적인 문자 교육을 받은 세대로, 특히 서울 중산층 주부의 경우에는 50% 이상이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을 정도의 고학력자들이었다.<sup>20</sup> 이 여성들은 언론에서 ‘평범한’ 가정주부라고 언급되곤 했으나, 근대화와 경제개발의 수혜를 가장 먼저 받을 수 있었으며 또한 중등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었다는 점에서 결코 한국 여성의 ‘평균’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sup>21</sup> 그럼에도 이들 역시 ‘전근대적’ 생활 환경으로 말미암아 읽고 쓰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만들 수 없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대다수 여성들과 그리 다른 처지에 있는 것도 아니었다. 아무리 근대화와 경제개발의 수혜를 받으며 성장해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시기 중산층이 계층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서민에 포함되었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sup>22</sup>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1960년대 근대화와 경제개발로 인한 문학 행위성의 증가는 다른 서민 여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도시 중산층 여성들에게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이 여성들은 ‘주부’라는 이름으로 포착되었으며, 근대화와 경제개발을 통해 부상한 1960년대

---

의 기회를 얻기란 쉽지 않았다.

- 20** 서울 종로구 내 재래식 한옥에 사는 중산층 가구 50가구 조사에서 주부들의 학력 수준은 초등학교 졸업이 22.3%, 고졸이 50.6%, 대졸이 16.2%, 기타 10.9%로 조사되었다. (『서울의 주부생활』, 『경향신문』, 1968.6.24.)
- 21** 1966년 여성의 50%가 초등학교를 겨우 마친 수준이었으며, 4년제 이상 대학에 여성이 진학했던 비율은 1%도 채 미치지 못했다. (민현주·안상수·황정미, 「지표를 통해 본 한국 여성 삶의 변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31쪽 참조.)
- 22** 일반적으로 서민이란 ‘권력에서 소외되어 특권을 가지지 못한 일반 대중’을 뜻한다. 1970년대까지 한국에서 이러한 서민층에는 근대화와 경제개발을 통해 성장하고 있던 중산층 역시 미분화된 상태로 포함되어 있었다. 중산층이 비로소 하나의 계층으로 분화된 것은 1980년대 이후라고 얘기된다. (장세훈, 「서민의 사회학적 발견-중산층을 통해 본 서민의 사회계층적 위상」, 『경제와 사회』 제109호, 비판사회학회, 2016 참조.)

여성 대중 독자 전체를 대표했다.

『살림걱정』잠시잇고

主婦白日場壯元에盧京子씨

10일 경회루에서 열렸던 제1회 전국주부백일장에는 1백 50여명의 주부들이 모여 시와 산문의 창작 재능을 겨루었다. 가사에 문혀 글을 쓸 기회를 갖지 못했던 주부들에게 맑고 푸른 하늘 아래서 오랜만에 상념과 표현의 날개를 펴게 하기 위해 한국여류문학인회가 공보부의 후원을 얻어 개최한 이날 백일장은 아침 일찍부터 도시락과 화판·연필을 들고 몰려든 1일 시인·1인 수필가들로 붐볐는데, 개회식에 이어 주어진 주제는 「새벽」과 「부부」. 1백분 동안에 시 한편을 쓰든가 2백자 원고지 12장 내외의 산문을 쓰든가 해야했다.

이어 오후 2시경 심사완료와 함께 발표된 입상자명단은 다음과 같으며, 특히 장원에 뽑힌 盧京子(30·城東구동492) 여사는 공보부 5월 문예상에 입선한 바 있는 소설가. 습작 20여 편의 단편을 썼고 「톨스토이」와 金東里씨를 사숙하는 신진 소설가다. 「부부」를 제목으로 택한 盧여사 글의내용은 고부간의 친화를 위해 남편이 손님 앞에서 아내에 대한 거짓말을 한 것을 나중에야 이해하고 사랑이 더욱 두터워졌다는 이야기. 문장의 매끄러움보다는 테마의 심오함을 택했다는 심사위원들의 평이었다. 육군 소위의 부인인 盧여사는 2세된 딸 하나를 가지고 있다.

심사위원은 여류문학인회 임원 전체. 朴花城회장을 대표로 시부 주심은 金南祚씨, 산문부 주심은 孫素熙씨가 맡았다.<sup>23</sup>

1960년대 중후반 이후 여성 독자층을 확보하기 위해 언론사 및 출판사들은 여성 독자 투고란을 마련하는 것의 연장선상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백일장과 신춘문에 역시 개최했다. 『경향신문』에서는 1967년 1월부터 신춘문예에서 주부 수기를 공모받기 시작했으며, 한국여류문학인회는 1967년 10월부터 주부백일

23 『『살림걱정』잠시 잇고』, 『동아일보』, 1967.10.12.

장을 개최하기 시작했다. 또한 『조선일보』는 1968년 1월부터 주부 독자 대상으로 ‘생활문예상’을 제정하여 매월 당선작을 발표했다. 이와 같은 문예 대회가 ‘주부’를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데서 확인해볼 수 있듯, 이 시기 부상한 여성 대중 독자들은 ‘주부’로서 표상되고 있었다. 실제로도 ‘주부’라 불리는 대도시 중산층 여성들이 당대 부상한 여성 대중 독자들 중에서 가장 가시적으로 활발하게 문학 행위를 하는 집단이기도 했다. 이 시기 열린 여러 주부 문예 대회 중에서도 가장 성황을 이루었던 것은 한국여류문학인회 주최의 ‘주부백일장’이었다. 여성들이 직접 참가 신청을 해야 하는 이 백일장은 한국여류문학인회가 지속된 1990년대 초까지도 매회 1백 30명을 전후하는 여성들이 참석하는 등 성시를 이뤘다. 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물가로 만원에 해당하는 1백원의 참가금이 필요했으며, 화관, 연필, 도시락을 직접 지참하고 와야 했다. 자신의 여가를 위하여 자신의 권한으로 만 원을 기꺼이 쓸 수 있고, 자신이 먹을 도시락을 직접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시간적 여유를 낼 수 있는 여성들이 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었는데, 장원으로 뽑힌 여성들의 나이, 학력, 지역, 남편의 직업을 보면, 이들이 대체로 1930년대 후반에서 1940년대 초반에 태어나,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하여 공무원, 회사원, 기술자 등 수입이 안정된 대도시 중산층 남성들과 결혼한 여성들로 가정에서 ‘주부’의 역할을 전업으로 수행하는 이들이었음을 확인해볼 수 있다.

### 3 감상성에서 생활력으로 변화되는 여성성

근대화와 경제개발이 진행되면서 형성된 여성 대중 공론장을 통해 서민 여성으로 문학 행위자층이 확대됨에 따라, 이제까지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내용과 형식의 문학이 창작되기 시작했다. 대도시 중산층 여성을 위시하여 스스로를 ‘서민’이라고 칭하는 이들은 이제까지 적극적인 문학적 재현의 대상이 된 적 없었던 실제적인 생활세계, 특히 밥 먹고 일하며 놀이하는 등 가정을 중심으로 한 일상적 생활세계에 지대한 애착을 가지며 이를 사실적으로 재현했다.

김치는 기가 막히게 맛이 좋았다. 찌개를 끓여놓으면 양념맛과 김치는

쇠뼈국물맛까지 나는 것이 더 할 수 없이 맛있었다. 그런데 시집 김치는 점점 싱거워지고 소금맛과 신맛밖에 나지 않는, 허영계 빛 바랜 우거지 무침 같아졌다. 하루는 시어머님이 오시더니 “너희는 찌개를 잘 끓여먹으니 집엿걸로 지저먹고 너희 김치는 아버님 드리도록 해라”하셨다. 나는 불평을 억누르며 남편상에만 김치를 생김치로 놓고 시집 김치는 찌개를 끓여놓았다. 그랬더니 남편이 “나는 어머님이 담근 김치가 좋아. 너네 경상도 김치는 짜고 맵고 비린내만 난단말야”하고는 시집 김치를 급히 떨어오라고 해서 그것만 먹어치우는 것이다. 나는 남편 식성도 모르는 주부라는 열등감과 어머님이 안 계셔 어머님이 담가주는 김치맛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 속으로 울고 그것이 가슴에 맺혀 겨울 내내 시집 김치만 갖다 떨어놓고 지저주었다.<sup>24</sup>

위의 글은 1967년 제1회 주부백일장 장원 당선작인 노경자의 산문 「부부」 중 일부이다. ‘부부’를 주제로 쓰인 이 글은 김치를 두고 고부갈등이 벌어졌으나, 도리어 이 과정에서 남편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확인하게 되었음을 얘기하는 글이다. 이 글이 김치를 중심 소재로 채택하고 있다는 데서 잘 드러나고 있듯이, 이제 막 결혼생활을 시작한 서민 주부가 문학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까지 문예 소재로 그리 적절치 않다고 여겨졌던 일상적인 것들, 가사와 육아에 관련된 하찮고 사소한 것들이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될 수 있음을 의미했다. 또한 이 여성들이 일상을 영위하는 가운데 사용하는 평이한 어휘들 역시 생생한 이미지와 동적인 리듬을 띠면서 미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위의 인용에서 “김치는 기가 막히게 맛이 좋았다. 찌개를 끓여놓으면 양념맛과 감치는 쇠뼈국물맛까지 나는 것이 더 할 수 없이 맛있었다”와 같이 새로 담근 김치의 맛을 묘사하는 문장을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제1회 주부백일장의 심사를 맡은 박화성, 손소희, 김남조, 최정희, 임옥인 등 전문 작가들이 이 글의 ‘문장력’이 뛰어난을 얘기하는 것은, 이제까지 미적 감수성의 대상이라고 전혀 여겨질 수 없었던 가사와 육아와 같은 자질구레한 일상적 대상 역시 미적 감수성을 발휘할 수

24 「주부백일장壯元 부부 노경자씨의作品」, 『경향신문』, 1967.10.14.



있는 대상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에 대한 놀라움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해 시인 김남조는 다음과 같이 ‘말’과 ‘생활’이라는 키워드로 설명한다.

무릇 글로써 옮겨지는 말 중에서 「여성의 말」은 얼마나 되는가. 또 여성의 말은 어느 요구와 어느 진실의 어떠한 심도 내지는 어떠한 생명감을 제시해주고 있는가에 대해 한번쯤은 살펴봄직 하다.

요즈음 일간신문 문화면에서 「여자의창」 또는 「여성살롱」이라는 난이 여성의 소리를 듣기 위한 마련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본다.

여기 실린 글들을 읽어볼 양이면 수수하고 꾸밈없는 문체 속에 여성의 눈과 여성의 말의 진리가 적지 않아 질긴 힘으로 우리의 마음을 잡아당기는 것을 알게 된다.

예술도 필경은 그 근처에 「생활」을 두고 있다.

생활의 지혜, 생활의 요건, 생활의 반성과 개선 이러한 것을 풀어내고 또한 풀려고 하고 있었다.

진지하고 절실하며 이중에는 작가들이 못보고 간 순박한 예술적 정감과 미의식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sup>25</sup>

위의 인용에서 김남조는 일간지인 『동아일보』와 『경향신문』 등에서 여성 독자들의 투고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까지 ‘글’로 옮겨진 적 없었던 “여성의 말”이 ‘글’로 옮겨지고 있으며, 이로써 이제까지 향유된 바 없었던 새로운 미적 쾌감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여성 독자들이 선사하는 미적 쾌감은 오롯이 ‘생활’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생활’과 ‘예술’의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여지를 주고 있다고 얘기한다. 이제까지 우리는 미적 쾌감을 평범하고 세속적인 일상과 동떨어지거나 이를 초월한 곳에서만 구할 수 있다고 믿어왔으나, 이들이 제공하는 미적 쾌감은 오히려 평범하고 세속적인 일상 안에서 구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

25 김남조, 「女性和投稿」, 『경향신문』, 1962.8.9.

발견하고 향유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이 누구나 예술 창작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감동으로 이어지는 것이기도 했다.

시나 소설은 꼭 시인이나 소설가만이 쓰는 것은 아니다. 글은 누구나 쓸 수 있다. 또 누구나가 써야 한다. 글을 쓰는 일은 첫째 감정을 승화시키고 흠어진 여러 가지 생각을 주워서 하나의 그릇 속에 담아놓는 것을 뜻한다. 한마디로 마음을 닦는 일이다. … 작가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저마다 느끼는 기막힌 경험, 감정을 갖고 있고 누구나 그것을 글로 써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그러나 막상 써보려면 자기가 겪은 경험의 백분의 1도 쓸 수가 없다. 따라서 글을 쓰는 노력은 그 경험을 하나의 그릇(형식) 속에 담아놓는 기술을 뜻한다. 그릇 속에 담아놓아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 얼마전 여류문인협회가 주최한 제1회 주부백일장이 있었다. 학생들도 아닌 주부들의 백일장은 그만큼 보람 있고 이색적인 모임이었다. 시부에선 「새벽」이 1등을 했고, 산문에선 「부부」가 장원에 당선되었다. 그 두 작품은 시인이나 작가의 글을 뺄 정도였다. … 우선 호감이 가는 것은 조금도 꾸미지 않은 소박한 감정, 때문지 않은 언어가 풍기는 이미지의 신선함이라고 하겠다. 그 글을 읽은 사람들은 모두 흐뭇한 즐거움과 따뜻한 대화를 느낄 수가 있었다. …<sup>26</sup>

위의 제1회 주부백일장의 성황을 보도하는 기사는 여성들의 글이 “조금도 꾸미지 않은 소박한 감정, 때문지 않은 언어”를 보여주는 것이었으며, 그것이 또한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미적 감동을 안겨주는 것이었음을 얘기한다. 이에 더해 이 기사는 집안일에 묻혀 지내기만 했던 평범한 여성들이 이러한 아름다움을 글에 담아내고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표하면서, “글은 누구나 쓸 수 있”으며 “누구나가 써야”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었다고 얘기한다. 문학 창작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이고 관습적인 일상으로부터 초월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닌 특별한 개인이 자신만의 독특한 감수성으로 언어를 조탁할 수 있어야 가능한 것처럼 여겨

---

26 「餘滴」, 『경향신문』, 1967.10.16.

하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느끼는 기막힌 경험, 감정을 갖고 있”으며 “누구나 그것을 글로 써보고 싶은 충동”을 가지기 마련이기에 전문 작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글을 쓰는 노력”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처럼 서민 계층의 여성으로 여성문학 행위자가 확대된 것은 새로운 내용과 형식의 여성문학을 출현토록 했다. 내용과 형식의 새로움은 ‘생활’ 혹은 ‘일상’이라는 소재, 기존에는 문학의 소재가 되기에는 지나치게 세속적이고 현실적이라고 여겨지면서 기피되어왔던 소재들을 다룬다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었는데, 이는 너무나도 익숙하여 아무런 의미도 발견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일상생활에 어떠한 특별한 가치가 있는지 깨닫게 해준다는 데서 문학적 감동까지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흔히 넘겨버리기 쉬운 생활을 전연 새로운 기분으로 읽는 속에서 난 삶의 보람 같은 걸 느꼈다.”<sup>27</sup>라는 한 여성 독자의 말이 이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생활수기’라는 장르는 바로 이러한 ‘일상’ 및 ‘생활’에 대한 개념 전환 속에서 구성된다. 그런데 이로써 불어온 ‘생활수기’ 붐은 여성이 쓰는 글에 대한 기존 인식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다는 점에서 또한 특기할 만했다.

어머니와 나는 「종종」이의 방귀소리가 동덩… 거문고 튀기는 소리 같다고 웃은 일이 있었다.

오늘 밤 그놈은 한바탕 또, 거문고를 튀기고 나더니 「앗핫핫, 내 방귀 소리가 불꽃놀이 소리 같네…」하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아닌게 아니라 멀리서 퐁, 퐁소리가 울리더니만 南山의 검은 하늘에 불꽃이 반짝 수놓인다.

후주근히 밤비가 내리는 밤, 불꽃은 연이어 하늘에 무늬를 그리며 사라진다. 祝祭의밤,

아까만 해도 「종종」가 동네 아이들을 따라 불꽃구경을 나간다고 나가서는 같이 간 아이들은 다 돌아왔는데도 그놈만 안 돌아와서 나는 적삼을 뒤져 걸친 채 雨中の 밤거리를 헤매며 「종우야 종우야…」 목이 메이게 불렀는데… 틀림 없이 돌아올 아이를 두고 미리 겁을 먹고 목메인 소

---

27 『여성동아』, 1969.11.

리로 絶望보다 더 무서운 감감한 彼岸에 아이가 있는 것처럼 거리를 헤매었으니…

쌓이고 쌓이기만 하던 내 마음 속의 憂鬱과 悲哀(내 主觀으로만의)가 「쫄쫄」이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噴火口로 불꽃이 될 火藥이 터져 하늘로 올라가듯이 爆發된 것이다.

마치 번데기에서 흰불나방이 되어서 훨훨 날 듯이 내 마음 속에서도 나를 실컷 갹아먹은 흰불나방이 또 누군가를 괴롭히려고 날아갔는가 보다.<sup>28</sup>

위 인용문은 『동아일보』에서 1961년 9월 ‘여성살롱’을 처음 개설하면서 독자 투고 독려를 위해 예시글로 제시한 천경자의 수필이다. 이 수필은 여성이 쓰는 글 혹은 여성적인 글에 대해 당대 사회가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위 수필의 필자는 비록 화가라는 직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개구쟁이 아들을 둔 자애로운 어머니라는 가정 내 역할로부터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에 괴로움을 품고 있다고 에둘러 얘기한다. 이 여성 필자는 이와 같은 자신의 정체성 모순을 ‘憂鬱’과 ‘悲哀’라는 ‘主觀’으로 표현한다. “나를 실컷 갹아먹은 흰불나방”이라는 비유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가족관계에 의해 자신의 진정한 자아가 침해받고 있다는 심리적인 고통을 느끼고 있으며, 그 심리적 고통은 감히 어머니라는 천부의 역할을 두고 갈등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의해 더욱 증폭되고 있음을 이와 같은 감정 상태로서 표현하는 것이다. 1930년대 이래 여성이 쓰는 글 혹은 여성적인 글이란 사랑, 연애, 결혼에서 비롯된 여성 개인의 ‘비에’, ‘번민’과 같은 주관적 감정을 섬세한 이미지로 표현하는 글이라고 여겨졌다.<sup>29</sup> 결혼이

28 「가슴에棲息한 『흰불나방』」, 『동아일보』, 1961.9.8.

29 김경연은 여성들의 문예 양식이 구성되는 과정을 『신여자』, 『신여성』, 『신가정』과 같은 1920-30년대 여성지에 투고된 여성 독자 문예를 통해 보여준다. 여성 독자의 문예는 연애와 결혼과 관련된 자신의 비극적인 개인사를 두고 생겨나는 ‘번민’을 지극히 과잉된 감상성으로 묘사한다는 특성이 있었으며, 자신에게서 그와 같은 비극의 원인을 찾는 자기적발, 자기감시의 서사 혹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기고백의 서사를 특징으로 했다. (김경연, 『근대 여성문학의 탄생과 미디어의 교통-1920-30년대 여성문학의 형성과 여성잡지의 젠

불러온 가족생활의 굴레로 인해 근대적인 개인으로서의 자아실현을 미뤄둬야만 하는 데서 발생하는 여성의 ‘비에’와 ‘변민’을 비 오는 밤거리에서 터지는 불꽃, 훨훨 나는 흰불나방 등으로 표현하는 위의 천경자의 수필이 바로 그 전형적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간지의 여성 독자 투고란을 시작으로 새롭게 열린 대중 공론장에서 여성 독자들이 실제로 투고해오는 글은 이와 같은 여성적인 글에 대한 기대와 사뭇 어긋나는 것이었다. 여성 독자 투고란을 마련한 신문사의 취지는—교양 있는 여성들의 오붓한 사교장—이라는 홍보 문구처럼 여성적 감상성으로 쓰인 미문을 향유하는 것이었으나, 실제 일반적인 여성 대중 독자들이 보내오는 글은 이와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즐거운 신혼살림이 자칫하면 우울해지는 요즈음입니다.五천 三백원의 봉급을 받는 남편과의 보금자리도 어언 1년 반이 되었어요. 단칸 셋방 살이도 그저 꿈같이 달콤하고, 백일 지난 첫딸 「금이」를 안은 내 팔은 사뭇 행복이 뿌듯합니다. 이따금 찾아주시는 시어머님도 막내인 남편의 살림분위기를 신통히 여기시는 듯 옛날같이 집 한 채 못 사줘 따로 낸 것만 안타까와 하십니다. 날이 갈수록 다정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 큰동서가 모시는 시어머님이라 가끔 뵈옵는 탓인지, 아니면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언니 밑에서 자란 탓인지 모릅니다. 「어려운 살림 꾸려 가느라

---

더정치』, 소명출판, 2017, 315-322쪽.) 아울러 박지영은 여성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문예 양식에 맞추어 글을 쓰도록 유도하기 위해 남성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변민’이 곧 ‘근대적 개인으로서의 자각’과 같은 것이라고 얘기되었다고 지적한다. (박지영, 「〈신여성〉지의 ‘독자투고’문을 통해서 본 ‘여성적 글쓰기’의 형성과정-만들어지는 글쓰기, 배제된 글쓰기의 욕망-」, 『여성문학연구』 제12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4, 339-374쪽.) 한편 김윤경은 1950년대 창간된 여성지 『여학생』, 『여원』, 『주부생활』 등에 실린 여성 독자 문예를 통해 이와 같은 ‘여성문예’의 성격과 그 사회문화사적 의의를 다층적으로 분석한다. 김윤경은 사랑, 연애, 결혼으로부터 비롯된 ‘비에’, ‘변민’을 표현하는 ‘여성문예’의 특성을 ‘감상주의’라고 일컬을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여성문예’의 이러한 경향이 문단으로부터 아마추어리즘이란 이유로 외면받는 이유가 되었으나, 이러한 문단의 평가와 무관하게 여성 독자들은 문학을 둘러싼 센티멘털한 취향의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당대 문화 생산과 소비에 있어 큰 영향력을 발휘했음을 밝혀낸다. (김윤경, 『문학소녀의 탄생-1950년대 여성 독자의 문화사』, 책과함께, 2022, 135-150쪽.)

고생한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름이 지나도 모시 적삼 한벌 못 해드리고 먹기에 바쁜 형편이 안타깝군요. 우유값도 첫달보다 사뭇 뛰어나고 설탕값도 비싸져 젓이 잘 안나는 내 살림에선 어려운 고비입니다. 월급은 고정됐는데 물가는 몇 달 사이에 갑절로 된 요즘이라 우리만이 겪는 고충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불어난 가계부에 二, 三+원하는 생선 한토막 마음 놓고 사다 남편의 상차림못하는 것이 답답합니다. 오늘도 된장찌개에 멸치를 넣고 콩나물이나 볶아야겠어요.

김영옥(서울시 성동구금남동산 一〇 26세)<sup>30</sup>

『동아일보』, 『경향신문』, 『조선일보』는 여성 독자 투고란 마련 후 1년 혹은 2년이 지난 뒤 연말 결산을 하면서, 자신들이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의 여성들이 투고에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sup>31</sup> 투고글의 주제가 가족관계와 결혼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대체로 “물가타령, 가난탄식”이었다는 점이 놀랍다고 언급한다. 위의 인용이 1960년대 여성들의 ‘생활수기’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五천 三백원의 봉급”을 받는 남편과 “단칸 셋방살이”를 하는 생활, 다정한 시어머니에게 옷 한 벌 해드리기는커녕 밥상에 생선 한 토막 올리기도 부담스러운 자신의 가난한 생활과 그 생활에서 비롯된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토로하는 것이 ‘생활수기’의 전형적인 서사이다. 그러나 자신의 가난을 탄식하는 여성들의 ‘생활수기’는 생활고에 압도되어 헤쳐 나갈 길 없는 무력감을 표현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은 아니었다. 위의 필자가 “五천 三백원”의 봉급을 받는 남편과 “단칸 셋방살이”를 하면서도 사랑스러운 첫 딸을 키우며 단란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데 뿌듯해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 여성들의 ‘생활수기’는 아무리 가

30 「家計簿와 남편상 차림」, 『조선일보』, 1963.9.14.

31 1962년 한해 『경향신문』의 ‘여자의 창’에는 하루에 10여 통의 독자 투고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기쁨과苦悶 새겨진 1年」, 『경향신문』, 1962.12.20.) 1963년 『동아일보』 ‘여성살롱’에는 하루에 많으면 40여 통의 독자 투고를 받았다고 기록되고 있다. 「정감넘친 사교실 여성살롱의 일년」, 『동아일보』, 1963.12.26.) 또한 1964년 『조선일보』 ‘레이디살롱’에는 하루 평균 13통의 독자투고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다. 「生活속의 女心·女像」, 『조선일보』, 1964.7.17.)

난한 살림일지라도 자신의 일상생활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가난을 극복하여 앞으로 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해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민 여성들도 문학 행위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는 서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인데, 이는 지난 몇 십 년 간이나 여성적 정조라고 당연하게 믿어왔던 ‘비에’와 ‘번민’과 같은 감정이 실제로는 대다수의 여성 대중들이 자신의 현실에서 느끼는 감정과는 거리가 먼 것임을 얘기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이는 1960년대 서민 여성들의 ‘생활수기’ 역시 이 시기 박정희 군부독재정권의 근대화화 및 경제개발 이데올로기를 주입받아 쓰인 여러 가난 극복 수기 중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sup>32</sup> 그러나 생활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는 평범한 서민 여성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일상생활은 결코 사회 제 문제들과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자신의 생활을 향상하고자 하는 의지는 생활의 질에 타격을 주는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 정치 문제에 대한 비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여성 독자들은 자신들을 위해 열린 대중 공론장을 통해 계절 및 혼사뿐만 아니라, 가난, 사회범죄, 성역할, 부정부패한 정치 등 자신의 일상생활의 질에 직접적인 타격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 약착같이 가게를 꾸려나가는 생활력의 발휘를 여성으로서 자신의 역할로 받아들이고 있는 서민 계층의 여성들, 따라서 현실 감각이 뛰어날 수밖에 없는 이 여성들이 문학 행위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세대’와 ‘풍속’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글로 쓰이게 된 것인데, 이 역시 여성적 글이란 사회성 및 정치성이 부재하기 마련이라는 기존의 선입견과 대립되는 양상들이었다.

○…5월 13일 이 「女性살롱」欄에서 K여사의 「可觀인 求職條件」을 읽고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한마디 하고 싶다. K여사의 가정 환경은 그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어느 정도 여유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현사회는 작년과 금년과는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진다.

32 1960년대 박정희 군부독재정권의 빈곤 통치가 평범한 민중들로 하여금 어떻게 가난에 대해 모멸감을 느끼게 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갖게 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감정이 어떻게 가난 극복 수기의 창작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김옥선, 「빈곤 통치에 대한 생존 전략으로서 로컬공동체 연구」, 『배달말』 제63호, 배달말학회, 2018, 409-411쪽.

그것은 다름 아닌 생활에 대한 위협이다. 더구나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물가는 제멋대로 올라가니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쳐도 살지 못할 것 같으니 할 수 없이 택한 것이 아마도 K여사가 구하고자 하는 식모라는 아름답지 못한 직업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물론 K여사는 식모로서는 너무나 과중한 요구조건이라 할지는 모르지만 가족이 많다든지 애가 많다든지 하면 자연 심신이 고달픔과 아울러 그렇다고 해서 임금이 더 많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K여사는 어중이 떠중이도 月6백원이란 월급이 많다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아침 다섯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죽겠다고 발버둥쳐도, 쌀두말값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 어느 누구든 식구 적고 기왕이면 문화시설까지 갖추어져 있는 집안을 택할 것은 사실이다. K여사는 다 같은 여성이면서도 너무나 독선적인 말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인상을 주었다. 그렇다면 차라리 식모를 구하겠다고 나서지를 말든지…

金玉子(서울市城東區金北棟山的一九三·16統10班金順伊씨方21세·主婦)<sup>33</sup>

위의 인용은 식모를 구하고 있던 한 중산층 주부 K여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수기이다. 수기의 대상이 된 K여사는 자신의 가정에 식모 면접을 보러 온 이가 이것저것 따지면서 일거리를 고르려고 하는 것을 보고 불만을 품고 이를 사연으로 써서 보냈는데, 이에 대해 위 수기의 필자는 K여사가 마치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에게 일거리를 ‘베풀고’ 있다는 시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한 여성으로 하여금 그 노고에 비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용주의 천대까지 감수해야 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내모는 사회 현실의 모순에 대한 인식과 이 모순을 감당해야 하는 이에 대한 연민이 그 바탕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강한 사회성 및 정치성을 드러낸다. 1930년대 이래 여성이 쓰는 글 혹은 여성적인 글이란 세상이 자신에게 주는 고통을 마치 ‘운명’처럼 다만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극복하기를 체념하고 오직 인내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글로 정착되어왔다. 이로 인해 여성이 쓰는 글 혹은 여성적인 글에서는 사회

33 『『可觀인 求職條件』을 읽고』, 『동아일보』, 1963.5.16.



성 및 정치성의 요소가 제거되곤 했는데,<sup>34</sup> 이 수기가 보여주는 것처럼 1960년대 여성 독자 투고란에 실린 여성들의 실제 글은 이와는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에 『경향신문』에서 여성 독자 투고 글을 분석한 1966년의 한 기사는 한국 여성들이 사회 및 정치에 대해 뚜렷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 내용 역시 “신랄”함을 지적하면서, “한국 여성이 정치 사회에 전혀 무관심하다”는 기존 선입관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을 얘기한다.<sup>35</sup> 이로 인해 ‘생활수기’가 ‘남성적’ 문체를 보인다는 지적이 생겨나기도 한다.<sup>36</sup> 사회 및 정치를 바라보는 여성 대중 독자들의 시선은 구조적 모순을 꿰뚫고 이를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근본적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은 물론 아니었다. 또한 때때로 그들의 논조는 당시 일반적인 가난 극복 수기들처럼 근대화를 통한 사회의 일신을 주장하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그것과 거의 분리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여성들이 사회와 정치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지니고서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은, 여성들이 사회와 단절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자신의 주관적인 내면에만 몰두해있기 마련이라는 인식이 말 그대로 ‘선입견’에 불과한 것임을 시사해주는 것이었다.

#### 4 가난에 대한 동정적 유대감을 통한 대중성의 확보

대도시 중산층 주부를 비롯하여 기혼의 여교원, 은행원, 시골의 농사꾼, 여공, 다

34 김경연, 앞의 책, 315-322쪽.

35 「女性投稿欄에 비친 新聞參與意識」, 『경향신문』, 1966.4.4.

36 1968년 4월 저축생활증양회에서 공모한 ‘알뜰한 주부수기’ 심사 후기에서 심사자는 주부들로부터 받은 수기 1백 55편 가운데 많은 수가 “대필”이었다고 얘기한다. (“얼마나 많은 수기가 모두 대필이었는지 모른다. 미문려구(美文麗句)를 우리는 바란 것이 아니다. 물론 모집할 때 「대필은 안됨」이라고 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상식적으로 대필일 수 없는 것이 아닐까? 비록 엮어내려가는 글귀는 서툴러도 수기 가운데서 흐르는 진실된 어떤 사실만 제대로 기록되면 그것으로 못한것인데 어찌면 그렇게도 많은 수기가 모두 男便(?)의 손을 빌어 썼을까 하는 서글퍼지도록 서운한 마음이었다.”(「手記에비친진실」, 『매일경제』, 1968.6.11.)) “문체와 문필”이 여성의 것이 아닌 남성의 것으로 느껴진다는 것이 그러한 주장의 근거였다. 심사자는 자신이 받은 수기들이 대체로 현실의 어려움에 골몰하고 이에 불만을 품으며 억척스러움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여성적이지 않다고 느꼈다.

방 레지 등 1960년대 서민 여성들은 그들을 위해 마련된 대중 공론장을 통해 세대, 계층, 지역, 학력의 격차를 넘어 자신의 일상을 다른 여성들과 공유하며 소통하였다. 이로써 그들은 타인 역시 자신과 비슷한 삶의 질서 속에 놓여 있음을 깨달으며 자신의 삶에 대한 이해를 확장해나갔다. “무슨 마력이 서려 있어 나를 그다지도 이 欄에 집착시키는 걸까? 혼자서 解明해본다. 아마 이 欄을 통해 나와 같은 韓國女性들이 千差萬別의 생활을 해가는 모양을 一目요연하게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인 듯하다.”<sup>37</sup>와 같은 한 여성 독자의 말은 1960년대 ‘생활수기’의 커뮤니케이션적 특성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야기 나누기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은 특히 연민과 공감에 기반을 두는 것이었다.

「女子의窓」을 통해 속삭이는 女性의 마음과 生活周邊

1962년 8월 2일 忍耐는 쓰다고 했다

○…희망과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찬란한 햇별이 온누리에 가득하게 되면 나는 또 지리한 하루를 향해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어이, 「레지」 이리 좀 와. 제법 즐만하군. 왜 화장은 안하나. 분값은 내가 줄까?”

“아가씨 손좀 만질까.” 거기다 「매담」은 날더러 환히 들여다보이는 옷이나 목뒤가 훌쩍 패인 옷을 입으라고 핀잔이다.

“목과 팔에 흉터가 있어 흉할 뿐인걸요.” 거짓말을 태연히 지껄이면서 난 아찔했었다.

○…내 허위의 생활은 이것뿐이 아니다. 피곤한 다리를 끌고 대문을 들어서면 번번이 왜 이리 늦느냐는 어머니 얼굴과 마주쳐야 한다. “공장이 영등포인데다 전차를 타고 올라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아 어머니 품에 와락 달려가 울음을 터뜨리고 싶으면서도…

○…“누난 무슨 취미로 사나?” “글세… 이왕 우리는 무슨 취미로 사는 건 아니지 않니?”

37 「女子의窓을 읽으며」, 『경향신문』, 1963.3.11.

떨시와 저주와 모욕과 허위가 뒤범벅이 된 왜곡된 내 생활엔 도시  
「뜻」이란게 있을 수 없다.

○…그래도 나는 아직 무언가 다 버리지 않는았다.

“인내는 쓰되 열매는 달다”라는 명언을 아직은 믿고 있다. 이렇게 눈  
앞에 어른대는 사각모의 동생을 나는 또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鐘路區蓮建洞49李文子23다방중업원미혼)<sup>38</sup>

위의 인용은 가난 때문에 다방 레지로 일하면서 마담이나 남성 손님들에게 수시로 모욕을 느껴야 하는 자신의 일상을 쓴 한 여성의 ‘생활수기’이다. 이 여성은 비록 떨시에 노출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으며 그러한 일상이 언제 끝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막막하기는 하지만, “인내는 쓰되 열매는 달다”라는 명언에 기대어 동생의 학업을 끝까지 뒷받라지 하겠다고 새로이 다짐한다. 자신의 생활고를 비판하는 대신 언젠가는 지금보다 생활수준이 향상될 것임을 믿고 버텨보겠다는 서사의 흐름이 ‘생활수기’로서 전형적이다. 그리고 “어떤 은행의 여행원은 눈물 어린 글귀로 저를 달래주었”으며 “산골서 사는 어린少女의 편지는 피곤한 제 얼굴에 미소를 번지게 해주었”던 것처럼,<sup>39</sup> 이 여성의 이야기에 많은 이들이 직접 위로의 답장을 보내는 것으로 응답했다. 사회적으로 낙인찍힌 직업을 가지고 있어 연민과 공감의 대상이 되기 어려울 수도 있었으나, 그 역시 가난 때문에 초래된 불행이기 때문에 가난의 고통을 아는 많은 이들이 이 여성을 연민하고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연민과 공감의 응답은 화자인 이 여성에게 “세상 삶에 힘”을 새로이 얻을 수 있게 해준다. 자신의 고통이 오로지 자신만의 고통에 그치지 않음을 알게 된다는 것은, 자신이 그 고통을 혼자 견뎌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견뎌 내고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연민과 공감을 통해 형성된 타인과의 유대감이 행위주체성의 강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생활수기’가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유대감을 여성 대중 독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38 「인내는 쓰되 열매는 달다」, 『경향신문』, 1962.7.18.

39 「인내는 쓰되 열매는 달다」, 『경향신문』, 1962.8.17.

‘생활수기’는 일간지 및 월간지와 같은 대중매체를 기반으로 창작되고 수용되는 것이었기에, 보다 많은 대중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대중성을 반드시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대중성은 그것이 수용자에게 특정 효용을 가져다줄 때 용이하게 발생한다. ‘생활수기’는 이제까지 본 적 없었던 내용과 문체로부터 신선한 미적 쾌감을 선사하는 것이기도 했고, 세태에 대한 신랄한 풍자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지만,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일상 이야기를 타인과 공유하는 과정에서 유대감을 선사해준다는 데서 그 효용성이 가장 컸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인 유대감은 고립감과 단절감을 해소하고 안정감을 선사해주는데, 이는 자신에게 그리 우호적이지 않은 세상에 주눅들여 주저앉아 있기보다 또 다시 일어나 살아나갈 수 있는 실질적 ‘힘’을 북돋아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생활수기’가 여성 대중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유대감은 특히 스스로를 약자라고 여기는 이들 사이의 유대감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일간지 및 월간지에 투고되는 여성 대중 독자들의 ‘생활수기’에서 일상생활 중에 겪었던 괴로움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면서 ‘넋두리’, ‘하소연’, ‘푸념’을 찾아보기 쉬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젠더가 취약함 혹은 무력함 따라서 가부장 하의 보호 혹은 종속이 필요한 ‘약자’라고 규정되곤 한다는 점에서,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기반으로 글을 쓰는 일이 곧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강한 존재가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특별한 능력이 없기에 역경이 오면 부서지기 쉬운, 따라서 역경을 두려워하는 약한 존재로서 글을 쓰는 일이 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생활수기’에서 제공하는 유대감은 취약함에 대한 연민과 공감 위에 형성된다. 타인이 겪고 있는 고통은 상대방과 똑같이 취약성을 지니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점에서, 독자는 필자와 동질감을 느끼고 독자인 ‘나’의 이야기 역시 필자인 ‘너’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음을 필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독자가 느낀 동질감을 상호적인 것으로 만들고자 한다. 비록 물리적인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지라도 이와 같은 주고받음의 과정 속에서 상호 간의 유대감이 형성되는 것이다.<sup>40</sup>

40 이는 실제로 공동체의 형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 예로 『동아일보』의 여성 독자 투고란인 「여성살롱」이 1963년 12월 ‘동아여성’이라는 문우회 결성으로 이어진 과정을 살펴볼

그런데 이와 같은 유대감은 ‘가난’이라는 취약성에 대한 연민과 공감을 기반으로 형성될 때 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동아일보』 ‘여성살롱’의 베스트 사연으로 꼽히는 다음 사연을 살펴보자.

-1963년 6월 28일 동아일보 「이젠 웃어볼수도 없구나」

먼곳에서 찾아온 옛 동창과 함께 모처럼 못독의 푸른잔디를 밟으며 지나간 애기로 웃음꽃을 피웠다. 어느 보리 베는 밭독을 지날 때였다.

“허어, 팔자 좋구먼. 저런 아가씨들은 흥년이 들어도 걱정 없을 테지”

부러움 아닌 야유의 말이 어느 젊은이 입에서 튀어나왔다. 순간 무의식중에 밭걸음을 멈추고 「파라솔」을 접었다. 뜨거운 폭양 아래 채 익지도 않은 보리가 장마로 거무죽죽하게 썩은 것을 베고 있는 일꾼들은 너무도 표정이 없고 맥이 없었다.

작년 가을 흥년으로 비참한 고비를 넘기면서도 보리가 여물기만 바라는 희망으로 견디었던 농부들의 가슴은 썩은 보리보다 더 검은빛이 되었을 것이다.

“저런 아가씨들은 걱정 없을 테지” 그 한마디는 내 머리를 무섭게 뒤흔들었다. 하늘은 이렇게 푸른데도 어두운 병원의 흰 천장을 맞대고 누워계신 어머니, 젖을 못 먹어 보채는 동생의 얼굴이 눈앞에 다가온다.

“미안합니다. 그러나 몇 발자국 뒤의 우리 집에는 썩은 보리를 베는 당신들보다 더 쓰린 현실이 있고 나는 그 속에서 숨막히는 절망을 헤치며 산답니다. 모처럼, 정말 모처럼 피워본 웃음이 그렇게도 눈에 거슬렀다면… 눈물이 낀 동공을 감출 길 없어 오던 길을 되돌아 갑니다.”

이제 웃어 볼 수도 없구나

---

수 있을 것이다. “『여성살롱』이 여성 독자들의 가슴마다 “질은 여운”을 남기고 이것이 “우리 여성들” 사이에 “은연중 친밀감”을 만들게 하고 또한 “힘”이 되”어주었기에 이러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모임을 만들어보는 것이 어땠겠느냐고 한 독자가 제언하자, 많은 이들이 찬동하여 실제로 문우회가 결성되었던 것이다. 「『東亞女性』이란 모임 가졌으면…」, 『동아일보』, 1963.12.20.; 「投稿者가提議한『東亞女性』모임 贊成하는讀者投稿 많아」, 『동아일보』, 1963.12.28.

1963년 7월 2일 동아일보 希望걸고 『오늘의고개』 넘자 『이젠 웃어볼 수도 없구나』를 읽고

○…시험공부에 지친 머리를 식히며 집어든 신문. 우연히 시선이 女性살롱에 멎었다. “이젠 웃어볼 수도 없구나”라는 너무 절망적인 題號의 魔力(?)에 끌려 차례로 읽어가던 나는 그것이 바로 내 고향, 코흘리던 옛시절의 절친했던 벗의 얘기일 줄이야.

너무나 소원했던 우리의 우정이었다. 고향에선 내 부모형제가, 그리운 벗들이 피를 말리우고 살을 에이는 듯한 아픔 속에서 이를 악물며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가끔 잊는다. 공부를 한다는 알량한 명분을 내세우고 그 그늘 아래 안분한 생활에 빠지는 때도 있긴 하지만 “不安과 絶望”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의 주변에서 범람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은 누구를 탓할 수도 없다.

○…그리운 벗아. 너그럽던 네 마음씨가 아직도 내 가슴속에 이토록 시원스레 흐르는 한 우린 물러서지도 주저앉지도 않을 거야. 절대로 우리에게서 웃음을 빼앗아 갈 어떠한 요소도 이 세상엔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자.

먼 훗날 엄마도 너도 귀여운 동생들도 화안한 웃음을 안고 따뜻한 손길을 잡을 수 있는 그날을 고대하며 “오늘의 고개”를 오르자.

시작이 있으면 끝은 다가오기 마련이니까.

高雲淑 「서울 종로구 동숭동 50의6號」<sup>42</sup>

1963년 6월 28일 『동아일보』 ‘여성살롱’에는 조정숙 양이 며칠 전 자신이 겪었던 일을 쓴 일기가 실렸다. 비록 비참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중이었으나 오랜만에 자신을 방문한 친구와 함께 야외로 나들이를 나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

41 「이젠 웃어볼 수도 없구나」, 『동아일보』, 1963.6.28.

42 「希望걸고 『오늘의고개』 넘자 『이젠 웃어볼 수도 없구나』를 읽고」, 『동아일보』, 1963.7.2.

고 있었는데, 들판에서 일을 하고 있던 농부로부터 젊은 아가씨들이 고생도 모르  
고 놀러 다니고 있다는 비아냥을 들었던 일을 일기로 써서 보냈던 것이다. 그리  
나 조정숙 양은 사실 그들보다도 더 비참한 가난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었다.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 중이며 어린 동생은 젖을 못 먹어 굶고 있는 형편  
이었다. 4일 뒤, 『동아일보』 ‘여성살롱’에는 조정숙 양의 어렸을 적 친구 고운숙  
양이 보내 온 편지글이 실렸다. 교육을 위해 고향을 떠나 서울로 이사 간 이후 조  
정숙 양과 연락이 끊어지기는 했으나, 자신은 여전히 그녀의 친구로서 그녀의 고통  
을 자신의 일처럼 공감하며 위로를 건네고자 한다는 내용이었다. 서울에서 대  
학을 다니는 중산층 여성이 시골에 사는 가난한 농민 여성의 삶을 연민하고 공감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고통이 다른 무엇보다도 가난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었  
다. 1960년대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이라면 젠더, 세대와 계층을 막론하고  
가난의 고통에 대한 공감은 누구나 가능한 것이었다. 당시에는 아무리 생계 걱정  
을 할 필요가 없는 중산층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 중에서  
누군가는 시골에서 고생하며 가난하게 사는 이가 반드시 있었다. 고운숙 양 같은  
경우 아무리 자신의 부모가 딸을 서울에 유학을 보낼 만큼의 경제적 역량이 있는  
이들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가난한 농사꾼들과 마찬가지로 시골에서 고된 농사일  
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스스로를 가난한 시골 사람들과 무관하지 않고 자신 역  
시 그들 중 하나라는 감각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일 것이다. 이러한 감각이 가난  
의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여성에 대한 연민과 공감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그리  
고 이러한 감각은 전(全)사회적인 것이기도 했다. 1960년대는 우리 모두 ‘가난공  
동체’에 살고 있다는 감각을 공유하고 있었던 시기였으며,<sup>43</sup> 이는 여러 평범한 민  
중들로 하여금 박정희 군부독재정권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그 나름으로 동조하며  
가난의 고통과 그 극복 의지를 다지는 수기를 창작하게 했던 힘이 되었던 것이었  
다. 1960년대 서민 계층의 여성들에 의해 쓰인 ‘생활수기’ 역시 이와 같은 사회  
문화적 맥락 하에서 구성되었던 장르로서, 조정숙 양이 ‘여성살롱’에 자신의 생  
활고를 쓴 일기를 투고하고 800여 통이나 되는 위문편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43 천정환, 앞의 글, 234-235쪽.

-1963년 7월 19일 동아일보 “貞淑씨에 「라디오」를 보냅니다”

한 讀者가 呼訴의 편지

다음 글은 본보 6월 28일자 「여성살롱」란에 실린 「웃어볼수도없구나」의 筆者 趙貞淑씨를 돕고자 慶南密陽의 독자 박영수씨가 보내온 것이다. 趙貞淑 씨의 글이 독자들에게 크게 반향을 일으킨 사실은 7월 10일자 8백여통의 격려의 편지를 받았다고 고마움을 적어온 趙양의 글이 말해주었던 것이다.

「편집자주」

동아일보의 「여성살롱」 애독자들이면 忠南洪城邑의 「정숙」씨가 쓴 눈물겨운 기사에 대해 모두들 공감했을줄 압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하느님으로부터 권리와 자유를 동등하게 부여받았으나 다만 주위환경 때문에 제압을 받고 빈부귀천이 생기는 것이라고 봅니다. 올해같은 흉년에는 정말 웃음도 제대로 웃지 못할 실정임은 신문을 통해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럴수록 용기는 필요합니다. 우리들은 다같이 용기와 희망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독자들은 「정숙」씨에게 우선 우리의 적은 성의를 모아 「라디오」 한 대라도 보내주었으면 합니다. 한사람이 여러 사람을 도우기는 힘들어도 여러 사람이 한사람을 돕는 것은 좀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디오」 없이 딱한 사정에 있는 「정숙」씨를 우리 「여성살롱」 독자들은 진실한 인간애로 엮어진 적은 성금들을 모아 우울한 현실로부터 웃으며 앞날에 대한 희망과 삶에 대한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라디오」 한 대쯤 보내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기에 「여성살롱」 독자들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저는 적은돈 一백원을 東亞日報密陽支局에 보냈습니다.

박영수 「경남 밀양읍 가곡동 728」<sup>44</sup>

44 「“貞淑씨에 「라디오」를 보냅니다”」, 『동아일보』, 1963.7.19.



자신은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자신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이들이 여전히 가난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은, 가난의 고통을 그들과 함께 겪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유발한다. 고운숙 양뿐만 아니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많은 이들이 조정숙 양의 가난에 연민과 공감을 표하며 이에 더해 도움을 손길을 내밀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죄책감에 근거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는 1960년대라는 시기가 비록 근대화와 경제개발이 시작된 시기이지만 아직까지 빈곤에 대한 자유주의적 가치관이 정착하지는 않은 과도기였음을 얘기해준다. 위의 인용에서 조정숙 양에게 응답한 한 남성 독자는 “인간은 태어날 때 하느님으로부터 권리와 자유를 동등하게 부여받았으나 다만 주위환경 때문에 제압을 받고 빈부귀천이 생기는 것”이라고 얘기한다. 이는 아직까지는 가난 그 자체가 게으름과 무능력과 같은 개인적 악덕의 소산으로 여겨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sup>45</sup> 이에 가난은 수치스러워할 것도 아니고 혐오스러워할 것도 아니므로, 가난한 이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가난한 이가 도움을 구하거나 받는 것도 윤리적으로 거리낄 게 없다. 이 점에서 가난을 둘러싸고 형성된 1960년대 한국 사회의 공동체감은 ‘빈곤탈출’이라는 당대 지배 이데올로기의 반영이라고만 할 수 없다. 박정희 군부정권은 가난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적이라고 홍보하면서 국민 대중들에게 ‘빈곤탈출’을 제1의 생애과업으로서 받아들이도록 했다. 그러나 위의 ‘생활수기’에 대한 응답에서 볼 수 있듯 가난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공동체감은 가난을 타자화하는 것과는 대립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그것을 발생시킨 지배 이데올로기에 순응하고 있다거나 암묵적으로 공모한다고 선블리 얘기하기 어렵다.<sup>46</sup>

45 근대화와 경제개발 이후 빈곤이 개인적 악덕으로 인식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황병주, 「1950-60년대 엘리트 지식인의 빈곤 담론」, 『역사문제연구』 제37호, 역사문제연구소, 2017, 554-566쪽.

46 1960년대 가난에 대한 연민과 동정의 감정이 공동체성을 띠었던 이유는 대체로 이운복 어린이의 수기 『저 하늘에도 슬픔이』(1965)와 이 영화를 토대로 김수용 감독이 제작한 영화 『저 하늘에도 슬픔이』(1965)를 대상으로 하여 분석되어왔다. 이때 가난에 대한 공동체감은 시대 변화의 직접적 반영이거나(차승기, 「두 개의 ‘전후’, 두 가지 애도」, 『사이間SAI』 제21호,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6, 249-250쪽),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암묵적 순응(이화진, 「가난은 어떻게 견딜 만한 것이 되는가」, 『한국극예술연구』 제60호, 한국극예술

가난을 둘러싸고 형성된 이와 같은 전사회적인 공동체감은 당시 점차 일반화되어가던 대중매체를 기반으로 하여 개개인에게 선사되었다. 조정숙 양의 사연을 접한 독자들이 그녀에게 다른 무엇보다 ‘라디오’라는 대중매체를 보내는 모금을 하도록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연유 때문일 것이다. 대중매체는 실제 접촉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들로부터가 아니더라도 문자를 매개로 한 상상을 토대로 고통을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유대감을 느끼게 해준다. “신문도 라디오도 없는 貧家의 소녀”가 “찢어진 반조각의 東亞日報”의 ‘여성살롱’ 란을 통해 자신의 고통에 대한 연민과 공감을 구했던 것처럼, 그녀에게 지금으로서 가장 큰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여성 대중 공론장처럼 자신의 취약성에 공감해줄 수 있는 커다란 독자 집단의 존재, 자신 또한 그 큰 집단의 일부라는 유대감, 그리고 그것을 선사해줄 라디오인 것이다.

## 5 결론

1960년대는 한국 여성들의 문학 행위에 있어서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만한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였다. 1960년대 근대화와 경제개발 속에서 기업화되기 시작한 언론사들이 더 많은 대중 독자를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여성 일반이 접근할 수 있는 대중 공론장을 마련함에 따라, 소수의 중상류층 엘리트 여성이 아닌 경제적으로 그리 넉넉지 않은 대다수의 서민 여성들 역시도 문학 행위자로서 편입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생활수기’라는 새로운 여성문학 장르는 그 소산이라 할 수 있다. ‘생활수기’는 박정희 군부독재정권의 근대화와 경제개발 이데올로기에 의해 고무받아 여러 민중 주체에 의해 쓰이기 시작한 가난 극복 수기의 한 종류로, ‘생활수기’의 부상은 기존의 여성문학과 변별되는 새로운 내용과 형식을 보이는 여성문학의 출현을 징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1930년대 이래 여성문학이란 연애와 결혼과 관련된 자신의 개인사를 두고 생겨나는 ‘비에’와 ‘번민’을 지극히 과잉된 감상성으로 묘사하는 문학으로 이해

---

학회, 2018, 47-80쪽), 혹은 민중적 저항(박숙자, 「1960년대 수기와 민/중」, 『어문연구』 제47(3)호, 2019,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58쪽)으로 논의되어 왔다.

되고 있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의지대로 바꾸어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할 연약함이 곧 ‘여성’으로서 스스로를 인식하는 기반이 되어, 연애와 결혼 같이 남성과 맺는 관계를 간절히 희구하거나 혹은 이 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좌절감이 여성문학의 주된 주제가 되어 왔다. 이에 여성문학은 으레 비극적인 정조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생활수기’에서 이와 같은 여성문학의 일반적 특성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생활수기’의 주된 행위자층인 서민 여성들은 그간 문학적 제재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간주되어왔던 세속적인 일상생활을 사실적으로 재현했으며, 비극적인 정조가 아닌 고된 생활고 속에서도 억척스러운 생활의 의지를 보인다는 특징이 있었다. 실질적인 생계의 책임을 맡은 서민 주부로서 자신의 감정에 매몰되어 있을 만한 여유를 누릴 수 없는 계층이었다는 점이 이와 같은 차이점을 빚어내는 것이었을 텐데, 이로 인해 ‘생활수기’에서는 기존 여성문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현실 세태에 대한 강한 비판이 나타나기도 했다. 아울러, ‘생활수기’에서도 여성이 무력하고 취약한 존재로서 인식되는 것은 마찬가지였지만, 이와 같은 무력함과 취약함은 남성과 종속적인 성적 관계를 맺어야만 하는 당위적 전제로서 인식되기보다, 자신과 마찬가지로 무력하고 취약한 다른 여성과 연결되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었다. 서로가 서로의 취약함을 연민하고 공감함으로써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은 고립된センチ멘털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세상을 다시 한번 살아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제공했다. 이와 같은 ‘생활수기’의 성격은 특히 가난의 고통을 그 주된 제재로 다룰 때 전국민적인 감동을 자아내도록 했다.

이처럼 ‘생활수기’라는 장르의 내용과 형식이 근대화와 경제개발에 의해 직접적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근대화와 경제개발이 1970년대를 전후한 여성문학의 변화를 이끌어낸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었다고 얘기해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단행본

김경연, 『근대 여성문학의 탄생과 미디어의 교통-1920-30년대 여성문학의 형성과 여성잡지의 젠더정치』, 소명출판, 2017, 315-322쪽.

김양선, 『한국 근·현대 여성문학 장의 형성: 문학제도와 양식』, 소명출판, 2012, 279쪽.

김윤경, 『문학소녀의 탄생-1950년대 여성 독서의 문화사』, 책과함께, 2022, 135-150쪽.

박정애, 『‘女流’의 기원과 정체성』, 한국학술정보, 2006, 15쪽, 205쪽.

레이먼드 윌리엄스, 성은애 역, 『기나긴 혁명』, 문학동네, 2005, 364쪽.

테리 이글턴, 윤희기 역, 『비평과 이데올로기』, 인간사랑, 2012, 93쪽.

## 논문

김근호, 「이야기판과 서사적 정체성의 역학 관계」, 『국어교육학연구』 제27호, 국어교육학회, 2006, 253-277쪽.

김옥선, 「빈곤 통치에 대한 생존 전략으로서 로컬공동체 연구」, 『배달말』 제63호, 배달말학회, 2018, 397-430쪽.

김은석, 「‘여류문학전집’(1967-1979)과 여성문학의 젠더 정치」,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82-92쪽.

김종희, 「1960년대 출판문화와 여성지 연구: 부르디외(Bourdieu)의 장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55쪽, 121쪽.

민현주·안상수·황정미, 「지표를 통해 본 한국 여성 삶의 변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31쪽.

박숙자, 「1960년대 수기와 민/중」, 『어문연구』 제47(3)호, 2019, 한국어문교육연구회, 397-430쪽.

박지영, 「〈신여성〉지의 ‘독자투고’문을 통해서 본 ‘여성적 글쓰기’의 형성과정-만들어지는 글쓰기, 배제된 글쓰기의 욕망-」, 『여성문학연구』 제12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4, 339-374쪽.

이선옥, 「1970년대 여성문학-여성전업작가의 등장과 다양한 글쓰기 주체의 성장-」, 『개념과 소통』 제26호, 한림과학원, 2020, 77-109쪽.

이화진, 「가난은 어떻게 견딜 만한 것이 되는가」, 『한국극예술연구』 제60호, 한국극예술학회, 2018, 47-80쪽

장세훈, 「서민의 사회학적 발견-중산층을 통해 본 서민의 사회계층적 위상」, 경

- 제와 사회』 제109호, 비판사회학회, 2016, 83-112쪽.
- 차승기, 「두 개의 ‘전후’, 두 가지 애도」, 『사이間SAI』 제21호,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6, 219-253쪽.
- 천정환, 「서발턴은 쓸 수 있는가」, 『민족문학사연구』 제47호, 민족문학사연구소, 2011, 224-254쪽.
- 한경희, 「1970년대 여성문학장의 형성과 ‘보통’ 여성의 작가적 시민권 주장-박완서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50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320-376쪽.
- 황병주, 「1950-60년대 엘리트 지식인의 빈곤 담론」, 『역사문제연구』 제37호, 2017, 519-574쪽.

#### 기타

- 車錫順, 「우리가 바라는 女性雜誌-生活과 동떨어진 構想은 「눈요기」뿐」, 『조선일보』, 1960.6.4.
- 「여성들은 반성하자 『영국여성이 본 한국여성』을 읽고」, 『동아일보』, 1960.10.5.
- 「일반여성. 살림에 억눌린채 「읽지않는다」가 대부분」, 『조선일보』, 1960.10.23.
- 「가슴에棲息한 『흰불나방』」, 『동아일보』, 1961.9.8.
- 「좁은문 넓은문」, 『경향신문』, 1962.2.3.
- 「인내는 쓰되 열매는 달다」, 『경향신문』, 1962.7.18.
- 김남조, 「女性과投稿」, 『경향신문』, 1962.8.9.
- 「인내는 쓰되 열매는 달다」, 『경향신문』, 1962.8.17.
- 「書店街에 비친 主婦의 讀書熱 寒心… 겨우 顧客의 二割 찾는책은 小說·「스타일·북」 따위」, 『조선일보』, 1962.10.24.
- 「기쁨과苦悶 새겨진1年」, 『경향신문』, 1962.12.20.
- 「女子의 蹙을 읽으며」, 『경향신문』, 1963.3.11.
- 「『可觀인 求職條件』을 읽고」, 『동아일보』, 1963.5.16.
- 「이젠 웃어볼수도 없구나」, 『동아일보』, 1963.6.28.
- 「希望걸고 『오늘의고개』넘자 『이젠웃어볼수도없구나』를 읽고」, 『동아일보』,

1963.7.2.

「편지 八百餘通 받고 고마운 마음에 눈물겨워」, 『동아일보』, 1963.7.10.

「“貞淑씨에 「라디오」를 보냅시다」, 『동아일보』, 1963.7.19.

「“여성살롱”이 맺은 미담」, 『동아일보』, 1963.7.23.

「알리는 말씀」, 『조선일보』, 1963.9.14.

「家計簿와 남편상 차림」, 『조선일보』, 1963.9.14.

「「東亞女性」이란 모임 가졌으면…」, 『경향신문』, 1963.12.20.

「정감넌친 사교실 여성살롱의 일년」, 『동아일보』, 1963.12.26.

「投稿者가提議한「東亞女性」모임 贊成하는讀者投稿 많아」, 『동아일보』,  
1963.12.28.

「生活속의 女心·女像」, 『조선일보』, 1964.7.17.

「女性投稿欄에 비친 新聞參與意識」, 『경향신문』, 1966.4.4.

「배우는 주부들 활발해진 성인재교육」, 『경향신문』, 1967.3.23.

「어머니는 고달프다」, 『경향신문』, 1967.5.8.

「『살림걱정』 잠시 잊고」, 『동아일보』, 1967.10.12.

「주부백일장壯元 부부 노경자씨의作品」, 『경향신문』, 1967.10.14.

「餘滴」, 『경향신문』, 1967.10.16.

「양지회여성강좌」, 『경향신문』, 1968.1.13.

「手記에비친진실」, 『매일경제』, 1968.6.11.

「서울의 주부생활」. 『경향신문』, 1968.6.24.

「「알뜰한女性像」에의 熱意」, 『동아일보』, 1969.5.1.

「主婦백일장 特別賞 받은 吳姬淑 할머니」, 『동아일보』, 1981.6.15.

## Abstract

The 1960s Housewife ‘Daily-Life Essay’ Boom in Women’s Literary History

Han Kyunghee

With the rising corporatization of media companies and the creation of a popular public sphere for women during the modern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process of the 1960s, working-class women of limited economic means emerged as literary actors. One product of this was the new genre of women's literature known as the 'daily-life essay.' An aspect of the nationwide phenomenon of essays about struggles with poverty which were inspired by the modernization and development ideology of the Park Chung Hee military dictatorship, these daily-life essays were symptomatic of a departure from previous women's literature in both form and content by working class women referred to as housewives.

Since the 1930s, women's literature had been known for overly sentimental depictions of heartbreak and anguish in personal stories of romantic love or marriage. However, these characteristics of women's literature rarely appear in the daily-life essays of the 1960s. The working-class women who were the primary literary actors composing daily-life essays instead dealt with subject matter previously considered unfit for literature, with realistic representations of ordinary, everyday life and portrayals of dogged determination amid hardship rather than tragic sentiment. As a result, these writings also include strong criticisms of social conditions difficult to find in previous women's literature. Furthermore, in these writings, the helplessness and vulnerability considered to be women's essential feature is not perceived as necessitating women's submission to men within a sexual relationship, but as a reason to connect with other women who are equally helpless and vulnerable. The character of such daily-life essays, especially when addressing struggles with poverty, moved the hearts of readers across the nation. Because the form and content of these daily-life essays was directly influenced by the modernization and development process, we can draw the conclusion that this process was a decisive factor in the transformation of women's literature around the 1970s.

Key words: Housewife, Poverty, Working Class, Modernization, People's Essay, Daily-life Essay, Women's Literature, Readers

논문제출 / 2023. 07. 02.

논문접수 / 2023. 07. 23.

게재확정 / 2023. 08. 04.